

임금체불로 복선철도 일부 구간 공사 중단

〈원주·강릉〉

피해 근로자 “발주처·원청 관리·감독 소홀 탓 5억 미지급”
원청 “직불제 시행 등 협의 중”... 발주처 “해결 방안 모색”

[원주]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교통망 시설공사인 원주-강릉 복선 철도 건설 현장 일부 공구에서 장비 대금 체불이 발생해 근로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체불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이달 중순부터 제2공구 일부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된 데 이어 29일에는 제2공구 전체 구간이 공사까지 전면 중단됐다.

전국건설기계강원원주연합회는 29일 원주시 소초면 ‘원주~강릉 철도 건설 제2공구 노반시설 기타공사’ 현장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미지급 장비대금 해결

을 촉구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제2공구 현장 5개 구간 가운데 2개 구간에서 하청업체 법정관리 등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장비대금 5억4,200만여원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체불 피해자들은 하청업체들의 강요로 법으로 보장된 대금 지급보증서조차 받지 못하는 등 불법 계약이 이뤄졌음에도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발주처와 원청은 이 같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하청업체 한 곳은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나머지 한 곳

도 나몰라라 하면서 생계가 막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청업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한 발주처와 원청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원청인 H중공업 관계자는 “하청업체에 이미 공사비를 지급한 상황이지만 원청업체로서 해결에 노력하기 위해 추가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직불제를 시행하려고 하는 등 근로자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교통망 시설인 만큼 공사 중단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해결 방안을 적극 찾고 있다”고 밝혔다.

김설영기자 snow@kwnews.co.kr

원주~강릉 철도 '궤도 공사' 착공

원주-강릉 철도 건설사업의 핵심인 '궤도 공사'가 착공됐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본부장 노병국)는 최근 평창군 진부면 매산터널(연장 610m)의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으로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 121km에 대한 궤도 공사가 본격화됐다고 29일 밝혔다.

궤도는 열차가 일정한 주행을 따라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게 하는 철도의 핵심시설로 레일, 도상, 침목과 부속품 등이 포함된다.

노병국 본부장은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이 올 3월 현재 58.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며 “내년 6월까지 노반, 궤도, 시스템 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같은 해말 개통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정태욱 tae92@kado.net

— 동 정 —



제한다.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도회장은 30일 오전 11시 도협회 회의실에서 '2016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를 주